

노형욱 장관 “폭염 속 건설 근로자 안전·방역에 총력 기할 것”

- 27일 건설현장 폭염 대비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에 총력 강조
- 잠실역 환승센터 찾아 방역실태 점검·환승 기반 시설 적기확충 지원

□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7일(화) 구리시 서울-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폭염기간 중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,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 줄 것으로 당부하였다.

□ 노 장관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폭염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을 보고 받은 뒤, “연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는 가운데 실외 작업이 많은 건설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
○ 특히 “한낮 무더위 시간에는 실외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, 정상적인 작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중지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으며,

○ “발주자는 시공자가 공사중지 상황을 우려하여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무리한 작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관련규정*을 마련한 만큼, 공기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줄 것”도 요청하였다.

* (공공) 공사계약일반조건(기재부예규), (민간) 표준도급계약서(국토부고시)

□ 또한, 노 장관은 근로자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현장 곳곳에 마련된 급수시설과 간이 휴게실을 둘러보는 자리에서,

○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“물·휴식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현장 작업공간에서 멀지 않은 곳에 휴게시설을 확보하는 등 건설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심하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”을 거듭 강조하였다.

- 한편, 건설현장 방문에 앞서 노 장관은 잠실역 환승센터를 찾아 코로나-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방역을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다.
- 노 장관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강화된 방역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뒤, 광역버스 승·하차 게이트 및 환승통로, 관제실 등 환승센터 내 방역현장 곳곳을 꼼꼼하게 점검하였다.
- 이 자리에서 노 장관은, “잠실역 환승센터는 수도권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광역 환승센터로 하루 약 1만2천명의 이용객들이 이용하시는 곳”인 만큼,
 - “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한층 높여 신속하고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에 총력을 다할 것”을 주문하였다.
- 아울러, “GTX,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가 본격적으로 개통하게 되면 수도권 광역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”면서,
 - “이에 대비하여 서울역, 청량리역 등 주요 광역환승센터를 속도감 있게 구축하고 사당역, 당산역 등 서울시내 주요 환승거점 12곳의 광역버스 환승시설도 개선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 - 이와 함께, “환승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, 정부도 행정적·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2021. 7. 27.

국토교통부 대변인